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요한복음 29 주차 (12:37~50)

(2015년 8월 9일 - 2015년 8월 15일)

(제3권 29호)



Missions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제 3 권-제 29 호

창간일: 2014 년 11 월 2 일

발간일: 2015 년 8 월 9 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한글

헬라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불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5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신과 하나님의 말씀 성취 (주일)

오늘의 본문 (요 12:37~43)

37.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38.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뉘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라
41.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2.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원문해석하기

- (37절) 그 많은 표적들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Τοσαῦτα δὲ αὐτοῦ σημεῖα πεποιηκότος ἔμπροσθεν αὐτῶν οὐκ ἐπίστευον εἰς αὐτόν.)
- (38절) 그 결과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성취되었다 (ἵνα ὁ λόγος Ἡσαΐου τοῦ προφήτου πληρωθῆ) 그는 말하기를 (ὃν εἶπεν·)
“주여, 우리의 들은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κύριε, τίς ἐπίστευσεν τῇ ἀκοῇ ἡμῶν;) 그리고 주의 팔이 누구에게 계시되었습니까?” (καὶ ὁ βραχίον κυρίου τίς ὑπεκαλύφθη;)
- (39절)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을 수 없었다 (διὰ τοῦτο οὐκ ἠδύναντο πιστεῦειν.) [때문에] 이사야가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ὅτι πόλλιν εἶπεν Ἡσαΐας·)
- (40절) 그들의 눈이 멀었고 (τετύφλωκεν αὐτῶν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졌다 (καὶ ἐπόρωσεν αὐτῶν τὴν καρδίαν.) 그 결과 그들의 눈은 볼 수 없게 되고 (ἵνα μὴ ἴδωσιν τοῖς ὀφθαλμοῖς) 그들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게 되고 (καὶ νοήσωσιν τῇ καρδίᾳ) 그들은 돌아서지 못하고 (καὶ στραφῶσιν.)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καὶ ἰάσομαι αὐτούς.)
- (41절) 이사야가 이것을 말하였다 (ταῦτα εἶπεν Ἡσαΐας) 그의 영광을 보았고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 (ὅτι εἶδεν τὴν δόξαν αὐτοῦ, καὶ ἐλάλησεν περὶ αὐτοῦ.)
- (4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그를 믿었다 (ὅμως μέντοι καὶ ἐκ τῶν ἀρχόντων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όν.)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ἀλλὰ διὰ τοὺς Φαρισαίους οὐχ ὡμολόγουν) 그들이 출교 당하지 않기 위해서 (ἵνα μὴ ὑποσυνάγωγοι γένωνται.)
-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ἠγάθησαν γὰρ τὴν δόξαν τῶν ἀνθρώπων μᾶλλον ἢ τὴν δόξαν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37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수많은 표적들을 보여 왔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그들 ‘앞에서’라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 ‘엠프로스덴’ (ἐμπροσθεν)은 ‘바로 그들이 보는 그 앞’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표적들을 행하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면 할 수도 없고 인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표적들을 그들이 부인할 수 없도록 그들 눈앞에서 보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작정 이들의 믿음없음을 비판합니다. 그들이 자신들만의 세계관에 갇혀서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 십자가에서 처형했다고 말이지요.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듯 “저 무지한 사람들이 메시아 죽였네~”라고 쉽게 단정해 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정도 표적들을 보여 주셨으면 당연히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이들의 믿음없음이 오로지 이들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8 절을 읽으십시오.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은 이사야를 통해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결과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성취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용한 구절이 이사야서 53 장 1 절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사 53:1).

우리 모두는 이사야서 53 장이 예수님의 수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 엄청난 수난을 당할 것과 그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 장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사 53:34).

이 말씀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은 성급하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믿음없음을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모든 고난과 죽음이 그들 책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을 좀 더 깊이 살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과 의지에 대해 깊이있는 통찰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조금은 철학적으로 보이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기로 하지요.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일하실 때 인간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반대되는 반응을 보인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패하시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애초에 목적을 세우실 때 그에 대한 인간들의 반응조차 그 목적 가운데 포함하신 것은 아닌가?” 또는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충돌할 때 단순히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자신의 의지를 접으시고 인간의 의지가 승리하게 하시는가? 아니면 인간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애쓰고 끝내는 그 의지대로 관철되게 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의지의 발현인가?”

우리는 흔히 인간들이 사단에게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그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떻게든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돌아 오기를 바라며 사단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인간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이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하지만 실제로는 사단에게 휘둘리는 인간들을 구출할 의지가 없는 무력한 신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표현이 맞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원리를 훼손하고 있는 셈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대전제를 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앞서 한 질문으로 돌아가서 당신은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그렇다, 아니다) 그것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의지가 충돌했을 때 인간에게 있는 ‘자유의지’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의지를 꺾고 인간의 의지를 따른다고 생각하시나요?(그렇다, 아니다). 그것에 대한 당신의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면 반드시 그 뜻은 성취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목적은 곧 결과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대표적인 명령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성취된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⁴⁷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¹⁸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7-18).

이 말씀을 보면 원래 율법은 인간을 통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대표하여 오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에 의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명하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힘으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그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마치 이 세상에서 승리한 것처럼 생각하여도 그 헛된 승리에 도취하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 아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통해서도 일하시기 때문이지요. 인간들이 죄가 없이 완벽하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구원도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차마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상황을 허락하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존재임을 깨닫게 만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특정인을 구원하고자 작정하시면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도록 만드시고야 맙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있다면 당신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 보십시오.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믿음의 주관자 하나님 (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2:37~43)

37.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38.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라
41.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2.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원문해석하기

- (37절) 그 많은 표적들은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Τοσαῦτα δὲ αὐτοῦ σημεῖα πεποιηκότος ἔμπροσθεν αὐτῶν οὐκ ἐπίστευον εἰς αὐτόν.)
- (38절) 그 결과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성취되었다 (ἵνα ὁ λόγος Ἡσαΐου τοῦ προφήτου πληρωθῆ) 그는 말하기를 (ὃν εἶπεν·)
“주여, 우리의 들은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κύριε, τίς ἐπίστευσεν τῇ ἀκοῇ ἡμῶν;) 그리고 주의 팔이 누구에게 계시되었습니까?” (καὶ ὁ βραχίον κυρίου τίς ὑπεκαλύφθη;)
- (39절)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을 수 없었다 (διὰ τοῦτο οὐκ ἠδύναντο πιστεῦειν.) [때문에] 이사야가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ὅτι πόλλιν εἶπεν Ἡσαΐας·)
- (40절) 그들의 눈이 멀었고 (τετύφλωκεν αὐτῶν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졌다 (καὶ ἐπόρωσεν αὐτῶν τὴν καρδίαν.) 그 결과 그들의 눈은 볼 수 없게 되고 (ἵνα μὴ ἴδωσιν τοῖς ὀφθαλμοῖς) 그들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게 되고 (καὶ νοήσωσιν τῇ καρδίᾳ) 그들은 돌아서지 못하고 (καὶ στραφῶσιν.)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καὶ ἰάσομαι αὐτούς.)
- (41절) 이사야가 이것을 말하였다 (ταῦτα εἶπεν Ἡσαΐας) 그의 영광을 보았고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 (ὅτι εἶδεν τὴν δόξαν αὐτοῦ, καὶ ἐλάλησεν περὶ αὐτοῦ.)
- (4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그를 믿었다 (ὅμως μέντοι καὶ ἐκ τῶν ἀρχόντων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όν.)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ἀλλὰ διὰ τοὺς Φαρισαίους οὐχ ὡμολόγουν) 그들이 출교 당하지 않기 위해서 (ἵνα μὴ ὑποσυνάγωγοι γένωνται.)
-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ἠγάθησαν γὰρ τὴν δόξαν τῶν ἀνθρώπων μᾶλλον ἢ τὴν δόξαν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목전에서 수많은 표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저자인 요한은 그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기는 커녕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9 절을 읽으십시오.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했고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을 수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구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원인은 도대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우리들은 그 원인을 대체로 인간들에게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실을 사실대로 아무리 얘기해도 그사람이 믿지 않으면 당연히 그 원인이 믿지 않는 그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기 쉬우니까요. 그러나 인간 사회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는 것에 대한 선택권,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택권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선택에서 반드시 믿음에 이르게도 하시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기 위해 결코 믿지 못하도록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기서 ‘능히 믿을 수 없었다’는 말은 ‘그것을 믿을 능력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믿고자하는 의지조차 없었습니다.

40 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은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의 눈이 멀었고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졌다 그 결과 그들의 눈은 볼 수 없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들은 돌아서지 못하고,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6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8 절부터 12 절까지를 살펴 보겠습니다.

“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⁹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¹⁰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¹¹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¹²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사 6:8-12).

8 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전해야 할 것이 있고, 그 전할 자를 찾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이 납득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기껏 백성들에게 가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듣지 못하리라고 말하라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시키신 일이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일깨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 10 절을 보면 이사야의 사명은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백성들은 마음이 둔해져야 했고, 귀가 막혀 말씀을 알아듣지 못해야 했으며, 눈이 감겨 진리를 보지 못해야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진리를 선포해도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눈 앞에서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못 알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를 요한이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마 13:11-15, 막 4:11-12, 눅 8:10 참조). 이 중에서 마태복음 말씀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1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¹²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¹³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¹⁴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¹⁵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¹⁶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마 13:11-16).

예수님은 그들이 진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마 13:11)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은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직후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 장소를 떠난 후에 남아 있던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난 사람들을 ‘저희’라고 지칭하며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 머리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 볼 수 있는 눈도 없었는데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라고 지칭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자 비로소 씨뿌리는 자의 비유를 풀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설명을 듣지 않고 떠난 사람들의 숫자가 끝까지 남아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숫자보다 훨씬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공부하다보면 분명 머리가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움을 느끼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껏 믿어 왔던 많은 부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을 테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서는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는데 인간들이 그걸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구원의 최종 결재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말이 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구원하시고야 맙니다. 제 아무리 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손바닥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인간이 구원받지 못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간섭해 오셨는지 꼼꼼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요 12:37~43)

37.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38.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라
41.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2.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원문해석하기

- (37절) 그 많은 표적들은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Τοσαῦτα δὲ αὐτοῦ σημεῖα πεποιηκότος ἔμπροσθεν αὐτῶν οὐκ ἐπίστευον εἰς αὐτόν.)
- (38절) 그 결과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성취되었다 (ἵνα ὁ λόγος Ἡσαΐου τοῦ προφήτου πληρωθῆ) 그는 말하기를 (ὃν εἶπεν·)
“주여, 우리의 들은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κύριε, τίς ἐπίστευσεν τῇ ἀκοῇ ἡμῶν;) 그리고 주의 팔이 누구에게 계시되었습니까?” (καὶ ὁ βραχίον κυρίου τίς ὑπεκαλύφθη;)
- (39절)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을 수 없었다 (διὰ τοῦτο οὐκ ἠδύναντο πιστεῦειν.) [때문에] 이사야가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ὅτι πόλλιν εἶπεν Ἡσαΐας·)
- (40절) 그들의 눈이 멀었고 (τετύφλωκεν αὐτῶν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졌다 (καὶ ἐπόρωσεν αὐτῶν τὴν καρδίαν.) 그 결과 그들의 눈은 볼 수 없게 되고 (ἵνα μὴ ἴδωσιν τοῖς ὀφθαλμοῖς) 그들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게 되고 (καὶ νοήσωσιν τῇ καρδίᾳ) 그들은 돌아서지 못하고 (καὶ στραφῶσιν.)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καὶ ἰάσομαι αὐτούς.)
- (41절) 이사야가 이것을 말하였다 (ταῦτα εἶπεν Ἡσαΐας) 그의 영광을 보았고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 (ὅτι εἶδεν τὴν δόξαν αὐτοῦ, καὶ ἐλάλησεν περὶ αὐτοῦ.)
- (4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그를 믿었다 (ὅμως μέντοι καὶ ἐκ τῶν ἀρχόντων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όν.)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ἀλλὰ διὰ τοὺς Φαρισαίους οὐχ ὡμολόγουν) 그들이 출교 당하지 않기 위해서 (ἵνα μὴ ὑποσυνάγωγοι γένωνται.)
-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ἠγάθησαν γὰρ τὴν δόξαν τῶν ἀνθρώπων μᾶλλον ἢπερ τὴν δόξαν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1 절을 읽으십시오. 요한은 자신이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영광스런 모습에 관한 것이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 절 말씀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웃시야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4 이 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다”(사6:1-5).

그런데 이사야가 본 이 광경은 계시록에서 요한이 본 환상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4 장 말씀을 보고 요한복음 12 장 41 절에서 전하고자하는 말씀의 의미를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 장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4 또 보좌에 둘러 이십 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 사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5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켜진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6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7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네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8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계4:2-8).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자신이 환상중에 본 그분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고 표현합니다. 요한계시록 1 장에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계 1:8)로 기록하고 있어 이분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 본 그 여호와 하나님이 곧 요한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분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기에 이사야의 예언은 곧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의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백성들의 눈과 귀를 가렸습니다. 결국 그들은 아들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게 됩니다. 인간들이 보기에 그 십자가의 죽음은 수난이고 수치이지만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가는 필수 코스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죽였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었던 것이지요. 그에 반해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분은 가장 높은 곳에서 경배를 받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사야가 본 그 모습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 심판을 지휘하십니다. 그의 고난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고 복음을 믿은 사람들과 자기 자신의 의를 의지하며 그것을 내세우던 사람들의 운명이 극명하게 나뉘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으신 가장 낮은 그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생각하기에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보기에 수치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는 영광의 길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신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의’이 신 그리스도가 아닌 인간이 만든 의를 내세우고 그것으로 도토리 키재기를 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세상에서 받는 칭찬에 목말라하며 그것으로 일희일비하지는 않는지 생각보아야겠습니다. 만약 약이 세상의 것, 인간들의 생각이 기준이라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며, 십자가와 부활도 더 이상 영광스러운 것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별거벗은 수치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수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 핍박도 당연히 그분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의 인생에 자신감이 없고, 남들에게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것이 불편하신가요? 무언가로 자신을 늘 가리고 다녀야 하는 것이 있나요?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중에 가장 내 놓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치유받는 길이요 하나님의 주신 그 영광의 의미를 올바르게 알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비겁한 믿음 (수요일)

오늘의 본문 (요 12:37~43)

37.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38.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40.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라
41.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42.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43.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원문해석하기

- (37절) 그 많은 표적들은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Τοσαῦτα δὲ αὐτοῦ σημεῖα πεποιηκότος ἔμπροσθεν αὐτῶν οὐκ ἐπίστευον εἰς αὐτόν.)
- (38절) 그 결과 선지자 이사야의 말이 성취되었다 (ἵνα ὁ λόγος Ἡσαΐου τοῦ προφήτου πληρωθῆ) 그는 말하기를 (ὃν εἶπεν·)
“주여, 우리의 들은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κύριε, τίς ἐπίστευσεν τῇ ἀκοῇ ἡμῶν;) 그리고 주의 팔이 누구에게 계시되었습니까?” (καὶ ὁ βραχίον κυρίου τίς ὑπεκαλύφθη;)
- (39절) 그러므로 그들이 능히 믿을 수 없었다 (διὰ τοῦτο οὐκ ἠδύναντο πιστεῦειν.) [때문에] 이사야가 다시 다음과 같이 말했다 (ὅτι πόλλιν εἶπεν Ἡσαΐας·)
- (40절) 그들의 눈이 멀었고 (τετύφλωκεν αὐτῶν τοὺς ὀφθαλμοὺς) 그들의 마음이 단단해졌다 (καὶ ἐπόρωσεν αὐτῶν τὴν καρδίαν.) 그 결과 그들의 눈은 볼 수 없게 되고 (ἵνα μὴ ἴδωσιν τοῖς ὀφθαλμοῖς) 그들의 마음은 깨닫지 못하게 되고 (καὶ νοήσωσιν τῇ καρδίᾳ) 그들은 돌아서지 못하고 (καὶ στραφῶσιν.)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καὶ ἰάσομαι αὐτούς.)
- (41절) 이사야가 이것을 말하였다 (ταῦτα εἶπεν Ἡσαΐας) 그의 영광을 보았고 그에 대하여 말하였다 (ὅτι εἶδεν τὴν δόξαν αὐτοῦ, καὶ ἐλάλησεν περὶ αὐτοῦ.)
- (42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그를 믿었다 (ὅμως μέντοι καὶ ἐκ τῶν ἀρχόντων πολλοὶ ἐπίστευσαν εἰς αὐτόν.)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ἀλλὰ διὰ τοὺς Φαρισαίους οὐχ ὡμολόγουν) 그들이 출교 당하지 않기 위해서 (ἵνα μὴ ὑποσυνάγωγοι γένωνται.)
-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ἠγάθησαν γὰρ τὴν δόξαν τῶν ἀνθρώπων μᾶλλον ἢ τὴν δόξαν τοῦ θεοῦ.)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2 절을 읽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원들 중에서 많은 이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여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ὅμως, 호모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앞의 나온 내용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날 때 사용하는 접속사입니다. 그렇다면, 앞에 나온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들의 귀를 막고, 이들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이 내용과는 정반대로 그런 영적인 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이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귀를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눈은 사물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셔서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들이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기갈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셔서 진리를 올바르게 알고 진리안에 거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5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6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7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취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11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시느니라 14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고전 2:4-14).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는데 (9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이들 관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들에게 성령님이 특별한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주라는 사실이 온전히 믿어진 적이 있나요? 그때의 경험을 간단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2 절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출교 당할까봐 바리새인들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믿음과 믿음의 선포는 별개입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과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을 목격했거나 그 사건에 대해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누구도 자신있게 나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그들이 바리새인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을 붙여 죽이기로 결심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위시한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해 왔는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들의 가르침이 거짓임이 판명되었고,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해 온 그 율법을 예수님이 훼손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 종파가 힘을 합쳐 예수님을 제거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감히 누가 나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 놓고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장담했던(요 13:37) 베드로마저 예수님이 심문을 받는 동안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세 번이나 부인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겻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고 혼비백산하여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소위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관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을 두려워하여 입밖으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지 못한 것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이에 대해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3 절을 읽으십시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들이 만약 자신들의 믿음을 드러내 놓고 증거하면 그들은 출교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관직을 내려 놓아야 했고, 더 이상 그들과 어울릴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 체면, 가족들의 안위 등등 모든 것들이 그들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것을 숨겼던 이유일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의 영광입니다. 뭐 엄청난 권세나 명예를 바라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인간의 영광’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들이 포기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거창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선언 하나로 충분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굳이 그것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서, 또 어떤 이들은 속으로만 믿으면 되지 뭐 그렇게 대 놓고 설레발을 떨 필요가 있느냐는 등등 각양각색의 이유로 많은 이들이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카멜레온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면에는 늘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항상 비겁함을 동반합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때론 엉망진창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도 있고,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초라한 삶일 수도 있습니다. 때론 예기치 않은 고난으로 인해 눈물이 마를 날 없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나의 삶이나 나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도 당신이 믿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자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니깐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요 12:44~50)

44.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47.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 여 주셨으니
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44절) 그러나 예수님이 외치시며 말씀하셨다 (Ἰησοῦς δὲ ἔκραξεν καὶ εἶπεν·)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ὲ οὐ πιστεύει εἰς ἐμὲ)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ἀλλὰ εἰς τὸν πέμψαντά με.)
- (45절)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καὶ ὁ θεωρῶν ἐμὲ θεωρεῖ τὸν πέμψαντά με.)
- (46절) 나 곧 빛이 이 세상으로 들어 왔다 (ἐγὼ φῶς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ἐλήλυθα.)
그 결과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ἵνα πᾶς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ὲ ἐν τῇ σκοτίᾳ μὴ μείνη.)
- (47절)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었지만 그것들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καὶ εἴαν τις μου ἀκούσῃ τῶν ῥημάτων καὶ μὴ φυλάξῃ.)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ἐγὼ οὐ κρίνω αὐτόν·)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οὐ γὰρ ἦλθον ἵνα κρίνω τὸν κόσμον.)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ἀλλ' ἵνα σώσω τὸν κόσμον.
- (48절) 나를 거부하고 나의 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의 심판을 갖고 있다
(ὁ ἀθετῶν ἐμὲ καὶ μὴ λαμβάνων τὰ ῥήματά μου ἔχει τὸν κρίνοντα αὐτόν·)
내가 말한 그 로고스, 그것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ὁ λόγος ὃν ἐλάλησα ἐκεῖνος κρινεῖ αὐτὸν ἐν τῇ ἐσχάτῃ ἡμέρᾳ.)
- (49절) 왜냐하면 나는 나로부터 [나온 것으로] 말하지 않았다
(ὅτι ἐγὼ ἐξ ἐμαυτοῦ οὐκ ἐλάλησα.)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가 나에게 명령을 주셨다 (ἀλλ' ὁ πέμψας με πατὴρ αὐτός μοι ἐντολὴν δέδωκεν)
내가 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τί εἶπω καὶ τί λαλήσω.)
- (50절) 그리고 나는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이라는 것을 알았다 (καὶ οἶδα ὅτι ἡ ἐντολὴ αὐτοῦ ζωὴ αἰώνιος ἐστίν.)

따라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ἀὐτὸν ἐγὼ λαλῶ,)
 아버지가 나에게 일러준 바와 같다 (καθὼς εἴρηκέν μοι ὁ πατήρ,)
 그렇게 나는 말한다 (οὕτως λαλῶ.)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4-45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장면을 접속사 ‘데’(δε)를 써서 앞에 서술한 내용과 이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앞에 나온 이야기와 동떨어진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동일한 연속선상에서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선포 바로 앞에 기록된 말씀은 무엇인가요? 당국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들이 바래새인들을 두려워하고 출교 당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사실을 드러내 놓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 구체적으로는 자신들의 영광을 더 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은 이유가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들의 이러한 비겁한 태도를 통해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려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의 이 선포는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으나 자신의 믿음을 감추고 세상 속에 파묻혀 그들과 동일한 사람인양 위장하고 사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비겁한 신자’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비겁함은 단순히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왕따 당할 것이 두려워서 또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고자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거나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것까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면서 겉으로는 기독교적인 틀을 유지하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는 내용은 모두 하나님이 아닌 인간에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비겁함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들이 소위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목사, 장로 등이 그런 분들이지요.

사도 바울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⁷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⁸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⁹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¹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갈 1:6-10).

갈라디아의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먼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절기를 지킬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

들이 미혹되었지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줄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같은 유대인들을 의식하여 여전히 유대 전통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갈라디아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식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의식한 결과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이는 ‘다른 복음’이며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다른 복음의 근원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망이 숨어있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도 이미 수많은 다른 복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려 수많은 세상적 가치들이 진리인양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지 교회 안은 상당 부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복음은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전략해 버렸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그 의미를 깨닫기보단 한시라도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자 새벽마다 ‘기도’라는 이름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을 자신들을 치장하는 장신구로 여겨 걸치고 다니다가 어느 순간 자기 맘에 안 들면 언제든지 벗어버리고 더 좋은 것으로 바꾸어 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는 각종 제도들이 이제는 버젓이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법’이 되고, 그것이 개인의 신앙을 측정하는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게다가 이제는 그 ‘법’과 ‘제도’에 순응하는 사람들이 신앙 좋은 사람들의 모범으로 인정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람 중심의 신앙, 다른 말로 인본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비겁한 신자,’ ‘인본주의자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 도구로 존재한다고 믿는 잘못된 신앙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믿는 자가 침묵하는 것은 단순한 침묵이나 비겁함을 넘어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돌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언제 어디서나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금 처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구하기까지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을 정도로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자랑하나요? 당신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이 싫어서 (다른 말로 그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침묵하고 있나요? 복음에 대한 침묵은 비겁함의 다른 모습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빛과 어두움 (금요일)

오늘의 본문 (요 12:44~50)

44.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47.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 여 주셨으니
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44절) 그러나 예수님이 외치시며 말씀하셨다 (Ἰησοῦς δὲ ἔκραξεν καὶ εἶπεν·)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ὲ οὐ πιστεύει εἰς ἐμὲ)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ἀλλὰ εἰς τὸν πέμψαντά με.)
- (45절)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καὶ ὁ θεωρῶν ἐμὲ θεωρεῖ τὸν πέμψαντά με.)
- (46절) 나 곧 빛이 이 세상으로 들어 왔다 (ἐγὼ φῶς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ἐλήλυθα.)
그 결과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ἵνα πᾶς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ὲ ἐν τῇ σκοτίᾳ μὴ μείνη.)
- (47절)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었지만 그것들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καὶ εἴαν τις μου ἀκούσῃ τῶν ῥημάτων καὶ μὴ φυλάξῃ.)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ἐγὼ οὐ κρίνω αὐτόν·)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οὐ γὰρ ἦλθον ἵνα κρίνω τὸν κόσμον.)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ἀλλ' ἵνα σώσω τὸν κόσμον.
- (48절) 나를 거부하고 나의 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의 심판을 갖고 있다
(ὁ ἀθετῶν ἐμὲ καὶ μὴ λαμβάνων τὰ ῥήματά μου ἔχει τὸν κρίνοντα αὐτόν·)
내가 말한 그 로고스, 그것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ὁ λόγος ὃν ἐλάλησα ἐκεῖνος κρινεῖ αὐτὸν ἐν τῇ ἐσχάτῃ ἡμέρᾳ.)
- (49절) 왜냐하면 나는 나로부터 [나온 것으로] 말하지 않았다
(ὅτι ἐγὼ ἐξ ἐμοῦ οὐκ ἐλάλησα.)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가 나에게 명령을 주셨다 (ἀλλ' ὁ πέμψας με πατὴρ αὐτός μοι ἐντολὴν δέδωκεν)
내가 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τί εἶπω καὶ τί λαλήσω.)
- (50절) 그리고 나는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이라는 것을 알았다 (καὶ οἶδα ὅτι ἡ ἐντολὴ αὐτοῦ ζωὴ αἰώνιος ἐστίν.)

따라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ἀὸν ἐγὼ λαλῶ,
 아버지가 나에게 일러준 바와 같다 (καθὼς εἶρηκέν μοι ὁ πατήρ,
 그렇게 나는 말한다 (οὕτως λαλῶ.)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6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나 곧 빛이 이 세상으로 들어왔다. 그 결과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로 번역되어 있는데 무난한 번역이긴 하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나” (ἐγὼ, 에고)와 “빛” (φῶς, 포스) 둘 모두가 주격으로 동격이기에 ‘나 곧 빛’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이 빛이고 빛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한다는 의미는 빛 안에 거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빛은 무차별적으로 비추는 빛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 빛 안에 들어와야만 비로소 밝음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 빛 안에 거하면 어두울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그 빛을 벗어날 수 없으며 늘 빛가운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들 마음은 때론 어둠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보낼 수도 있지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감정이나 마음 상태에 좌지우지된다 하더라도 이 절대적인 빛을 벗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설령 이 세상에서 죄를 짓고 힘들어 하거나 고통에 지쳐 아무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또는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영육이 모두 지쳐 버티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런 모습과는 무관하게 우리는 빛가운데 있고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의 비결이 있습니다. 신앙은 각자 처해진 상황이나 행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영광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수난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의 영광을 얻으심으로써 이미 달성된 것입니다. 결국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목적이 이미 결과로 주어진 셈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그 모든 영광을 누리는 자들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 이같은 복음은 한낱 말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힘들어하고, 여전히 어둠가운데 있으며, 여전히 자신들의 죄로 인해 두려워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마치 강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상 그 속에는 평안과 자유함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언제 제일 불안합니까? 까닭없이 찾아온 두려움에 시달린 적은 없는지요?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는 경험을 한 적은 없는지요?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고 자신들이 감정적으로 불편을 느꼈거나 동요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52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었지만 그것들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리고’ (και, 카이)라는 접속사를 쓰셔서 자신의 말을 이어가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라는 표현 뒤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빛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을 직접적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니까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세상을 대표해서 심판을 받으셨기에 심판의 주체라기보다는 오히려 심판의 대상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심판의 자리에 내어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심판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마무리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원래 그 심판의 자리에서 있던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그 심판을 면했을 뿐 아니라 그 심판의 그 효력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안 곧 빛 가운데 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니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들을 직접 심판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두려움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란 죽은 뒤에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갈 것 같은 그런 류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일상 생활에서 늘 접하는 두려움을 말하는 거지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평강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은 어떻게 주어지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성립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이지 내 내면의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조상 아담은 아내 하와가 건네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신이 벗은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라부라 무화가 나무 잎을 엮어서 띠를 만들어 허리춤에 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신에게 아내를 선물한 그 하나님,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돼버린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척에 그는 나무 뒤로 숨고 맙니다.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결국 두려움의 원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구원하였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받고 그 빛 가운데 행하게 됨으로써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상태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상태, 평강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나를 향하고 있지 않고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을 향해 퍼부어짐으로 그 진노의 심판이 면제된 것입니다. 단순히 면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 것이지요. 그것이 두려움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진정한 복음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롬 5:1-2).

로마서 5 장 1 절에서 한글 성경은 “화평을 누리자”로 번역하고 있는데 정확한 의미는 “지금 화평을 누리고 있다”입니다.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전쟁은 끝이 났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향하고 있지 않게 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매우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어 평화로운 상태에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체험할 수는 없는 걸까요? 아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자기의 마음 상태입니다. 나의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마음에 그런 평화가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나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이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요 12:44~50)

44.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45.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6.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47.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48.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49.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 여 주셨으니
50.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원문해석하기

- (44절) 그러나 예수님이 외치시며 말씀하셨다 (Ἰησοῦς δὲ ἔκραξεν καὶ εἶπεν·)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ὲ οὐ πιστεύει εἰς ἐμὲ)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입니다 (ἀλλὰ εἰς τὸν πέμψαντά με.)
- (45절)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καὶ ὁ θεωρῶν ἐμὲ θεωρεῖ τὸν πέμψαντά με.)
- (46절) 나 곧 빛이 이 세상으로 들어 왔다 (ἐγὼ φῶς εἰς τὸν κόσμον ἐλήλυθα.)
그 결과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어두움에 거하지 않는다
(ἵνα πᾶς ὁ πιστεύων εἰς ἐμὲ ἐν τῇ σκοτίᾳ μὴ μείνη.)
- (47절)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었지만 그것들을 지니고 있지 않으면
(καὶ εἴαν τις μου ἀκούσῃ τῶν ῥημάτων καὶ μὴ φυλάξῃ.)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ἐγὼ οὐ κρίνω αὐτόν·)
왜냐하면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고 (οὐ γὰρ ἦλθον ἵνα κρίνω τὸν κόσμον.)
오히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ἀλλ' ἵνα σώσω τὸν κόσμον.
- (48절) 나를 거부하고 나의 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의 심판을 갖고 있다
(ὁ ἀθετῶν ἐμὲ καὶ μὴ λαμβάνων τὰ ῥήματά μου ἔχει τὸν κρίνοντα αὐτόν·)
내가 말한 그 로고스, 그것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
(ὁ λόγος ὃν ἐλάλησα ἐκεῖνος κρινεῖ αὐτὸν ἐν τῇ ἐσχάτῃ ἡμέρᾳ.)
- (49절) 왜냐하면 나는 나로부터 [나온 것으로] 말하지 않았다
(ὅτι ἐγὼ ἐξ ἐμαυτοῦ οὐκ ἐλάλησα.)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가 나에게 명령을 주셨다 (ἀλλ' ὁ πέμψας με πατὴρ αὐτός μοι ἐντολὴν δέδωκεν)
내가 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τί εἶπω καὶ τί λαλήσω.)
- (50절) 그리고 나는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이라는 것을 알았다 (καὶ οἶδα ὅτι ἡ ἐντολὴ αὐτοῦ ζωὴ αἰώνιος ἐστίν.)

따라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ἀὶ οὖν ἐγὼ λαλῶ,)
 아버지가 나에게 일러준 바와 같다 (καθὼς εἶρηκέν μοι ὁ πατήρ,)
 그렇게 나는 말한다 (οὕτως λαλῶ.)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8-50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 가십니다.

“나를 거부하고 나의 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의 심판을 갖고 있다. 내가 말한 그 로고스, 그것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로부터 나온 것으로 말하지 않았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가 나에게 내가 말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야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명령을 주셨다. 그리고 나는 그의 명령이 곧 영생이라는 것을 알았다. 따라서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아버지가 나에게 일러 준 바와 같다. 그렇게 나는 말한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심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은 복잡하지만 예수님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심판받은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심판의 주체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그 로고스’(ὁ λόγος)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 장 1 절에서 ‘호 로고스’의 의미가 무엇인지 공부했습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말씀’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예수님 당시에 ‘호 로고스’는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이 우주의 근원, 우주를 다스리는 원리였습니다. 요한복음은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했었고, ‘그 로고스’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으며, 그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모습을 한 로고스인 것이며, 그분이 승천하신 후에 우리는 성령을 통해 그 분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신비의 연합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당연히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그 신비의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가셔서 ‘성령님’을 보내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연합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48 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를 거부하고 나의 말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의 심판을 갖고 있다. 내가 말한 그 로고스, 그것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표현하 것에 대한 의미를 조금은 알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로고스이신 예수님과 신비의 연합 가운데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로고스이신 예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심판은 예수님과 대적하여 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사단의 의미에 대해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신비의 연합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사단인 것이고 그들을 지배하는 세력들이 곧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관리들, 수많은 무리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한패인 자들이 한데 어울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바리새인들이 두려워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무리들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온 유대주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잡아 로마인들에게 넘기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있다고 철썩같이 자신들을 신뢰했던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공회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매우 철저하게 종교 생활을 해왔으며 누가보아도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종교 생활로 그들 생각에는 죄를 짓지 않았기에 용서를 구할 필요도 없었을 뿐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들과는 아예 어울리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의로움이고 거룩함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었고, 그들이 바로 심판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가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며 타인들이 조금의 실수라도 할라치면 그들을 가차없이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사람의 잘못이 드러나면 그를 감싸고 그를 용서하여 온전하게 이끌기보다는 정죄의 망치를 먼저 들지는 않는지요? 과연 용서받은 죄인인 그리스도인이 남을 정죄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버리고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각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49 절과 50 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은 그 로고스로서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형태로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께 부여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 바로 영생이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그가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그 로고스 안에 거하고 그 로고스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심판은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는 상태라는 뜻에서 더 나아가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생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 세상이 마지막이어서 죽고 나면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것이기에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고통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으로 화합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유감스럽지만 지옥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더더욱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사실,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 즉 그 영생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당신은 어떠한가요? 정말 당신에게는 영생이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나요? 당신이 그렇게 확신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그 근거를 간단하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 삶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뜻